

HOME (/) > 전국 네트워크 (/news/articleList.html?sc_section_code=S1N17) > 부산·울산·경남 (/news/articleList.html?sc_sub_section_code=S2N92)

창원시, 창동예술촌서 '설 문화놀이터' 개최

👤 박민언 기자 | 🕒 승인 2018.02.13

민속놀이터·연 만들기 등 다양한 무료 체험

경남 창원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, (사)창동예술촌과 함께 설 연휴기간인 오는 17, 18일 이틀 동안 창동예술촌 일대에서 시민과 귀향객을 대상으로 한 '설맞이 민속놀이터'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전통 민속놀이 행사와 무료 체험 행사 등 다양하게 준비했다.

전통 민속놀이는 △널뛰기 △투호던지기 △웃놀이 △전통팽이·현대팽이 대결 등이고, 무료 체험 행사는 △나만의 소원 연 만들기 △복주머니 만들기 등을 경험 할 수 있다.

이 기간 동안 설맞이 문화놀이 행사 이외에도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예술 전시도 함께 관람 가능하다. 이에 △창동예술촌 아트센터 2층 전시장 △소담갤러리 △리아갤러리 등 골목길에서 만나는 작은 전시장에서 특색 있는 작품도 만날 수 있다.

김해성 도시재생과장은 "이번 행사가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되고, 가족 친척,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는 물론 다양한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"고 말했다.

[신아일보] 창원/박민언 기자 mupark@shinailbo.co.kr

저작권자 ©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박민언 기자 기자